

광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전남, 미래 성장동력 키우기

내년 시·도정 중점사업

광주와 전남도의 2015년 공통 화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시·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다.

24일 양 시·도가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내년 시·도정의 방향을 분석했다.

◇광주시, 신규 일자리 창출 우선=광주시의 내년 시정의 핵심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다.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을 비롯한 하계U대회 개최, KTX호남선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도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7만개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민선 6기의 모든 정책도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광주의 미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의 2015년 주요 업무는 큰 틀에서 6대 분야(표)로 나뉜다.

시는 ‘참여하는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일정규모(120억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이양하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영역에 시민 참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평등한 인권도시 구현’을 목표로 4년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제 및 지역 최저 임금제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정책으로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빛고를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 복지 및 주거 기준 마련, 광주 마을형 복지 공동체 구축 등에 나선다. 시는 특히 이 같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낙후한 경제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선 6기 신규 일자리 7만명과 2015년 고용률 57.8%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 시민 참여 자치·복지도시 구현 등 6개 분야 역점 전남도 우주항공 산업·친환경 농업 육성 10개 과제 추진

■ 2015년 광주·전남 중점과제

□ 광주	
참여하는 자치도시 실현	·실질적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법시민 기초철서 지키기 운동 추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광주·전남 상생발전 강화
평등한 인권도시 구현	·인권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생활 임금제 및 지역 최저 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개소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도시철도 2호선 명품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광주마을형 복지 공동체 구축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낙후한 경제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동차산업밸리 추진 ·사회통합·경제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구는 문화도시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공 개관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아시아문화공동체 구축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

□ 전남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mismatch 해소, 청년 취업 촉진형 일자리 만들기 등
성장동력 기반 확충	·석유화학·철강 고도화, 조선·해양 다각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
빛가람 혁신도시 육성	·이전기관 조기정착 지원,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기업도시 선도사업 본격화	·구성·삼호·삼포지구별 선도사업 추진, 접근성 및 여건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FTA 대응	·신리반는 유기농 생산기반 확충, FTA 대응 종합대책 마련
바다환경 조성	·깨끗한 바다 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 양식어장 확충 등
대대적 관광객 유치	·광주 연계 관광상품 운영,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온정 있는 도민 복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의료여건 개선
소통과 청렴으로 신뢰 회복	·호남권정책협의회 및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활성화, 도민 소통 활성화 등
2대 브랜드 시책 본격 추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전남도,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의 해’=전남도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발판 마련, 도민 행복이라는 3가지를 핵심 주제로 잡았다. 이를 10대 과제(표)로 풀어냈다.

최고령화 사회인 전남에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철강·조선·해양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주항공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선 6기 브랜드로 내세운 섬과 숲 관련 사업의 기틀을 잡고,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선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인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도 본격화된다.

소통과 청렴, 온정 있는 복지, 지속가능한 바다, FTA 대응, 유기농 중심의 농업 정책 등은 도민의 행복과 직결돼 있다.

이 지사는 우선 ‘선 취업, 후 진학’을 통해 지역 거점산업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서남권의 조선·신소재, 동부권의 석유화학·부품소재, 중부권의 생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과 대학, 특성화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발된 학생을 고용한 뒤 대학에 진학시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인턴제를 대폭 늘리고, 청년 취업정보와 관련 ‘일자리 공유제’도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전 경영진 5·18묘지 참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앞줄 왼쪽)과 경영진이 24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묘지를 참배. 현화 분향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장 가운데 5·18묘지를 방문한 것은 조 사장이 처음이다. <한전 제공>

우주 설계한 신의 위대함 ‘놀라워라’



(97) 코스모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가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매력은 고단한 세속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우리의 의식을 우주로까지 확장시키는데 있는 것 같다. 우주 너머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또 극복해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우주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열광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인터스텔라’의 감흥은 비슷한 컨셉의 영화 ‘콘택트’ DVD를 다시 꺼내보게 하더니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를 이은 닐 타이슨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 빠져들게 한다. 대중에게 과학을 널리 알리고 행성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크게 향상시켰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외계의 생명체와 지적 존재를 찾

는 연구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우주에 우리 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고 했던 칼 세이건의 생각에 공감하며 세밀을 우주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상념에 잠겨 본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의 작품 ‘천지창조주’(1794년 작)는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영감을 한껏 자극한다. 작가는 우주 창조주의 모습을 컴퍼스를 들고 신비한 세계를 만들려는 건축가의 형상처럼 찬란하게 묘사하고 있다. 생각할수록 이토록 광대한 코스모스를 설계한 신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된다.

자신의 시와 그림을 융합시켜 하나의 환상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내었던 블레이크에게 우주는 과학으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직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다. ‘신의 형상을 따 만들어진’ 인간 그 자체를 소유주라 여겼던 블레이크는 그림과 함께 시 속에서 모래, 돌맹이, 바



윌리엄 블레이크 작 ‘천지창조주’

위, 언덕, 유성, 별 등의 사물에 깃든 무한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보고 노래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한 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윌리엄 블레이크 작 ‘순수의 전조’중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전남도 민원 만족도 전국 1위, 광주는 8위 국민권익위 17개 광역시 조사

전남도의 민원 만족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의 민원 만족도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민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충 및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의 종합 민원 만족도는 61.09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8위였다. 전

남도는 67.79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종합 민원 만족도 중 고충민원 부문에서는 광주시의 경우 46.09점으로 6위를, 전남은 47.39점으로 4위에 올랐다. 일반 민원 만족도 부문에서는 광주는 76.09점으로 전국 12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으며, 전남은 전북(90.90점)에 이어 88.20점을 받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종합민원 만족도는 59.77

점을, 고충민원 만족도는 41.97점을, 일반 민원 만족도는 59.77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였고, 95%의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1.02%포인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점을, 고충민원 만족도는 41.97점을, 일반 민원 만족도는 59.77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였고, 95%의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1.02%포인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